

『儒門事親』에 나타난 張從正의 治療法에 관한 研究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¹

金龍煥¹ · 李相協¹ · 金重漢^{1*}

A study on Jang Cong-zheng's treatment in 『Ru-Men-Shi-Qin』

Kim yong-hwan¹ · Lee sang-hyup¹ · Kim joong-han^{1*}

¹Dep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Dong Eui University

Objective : Methods of Jang Cong-zheng's treatment related to his theories include of promoting the sweating-vomiting-purgation(汗吐下三法), prickling-bleeding method(瀉血療法), and emotional therapy(情志療法). He succeeded Liu wan-su(劉完素) as promoter of fire-heat pattern theory(火熱論), thereby emphasizing six qi(六氣), especially fire(火) and dampness(濕), as pathogens. He suggested that physician should treat patients whose diseases occurred due to fire(火) and dampness(濕) with promoting the sweating(汗)-vomiting(吐)-purgation(下) methods, which would remove pathogen qi(邪氣) and help circulation of qi and blood, therefore getting them back healthy qi(正氣).

Method : I will try to describe the Jang Cong-zheng's treatment in 『Ru-Men-Shi-Qin』, and I would like to explain the sweating-vomiting-purgation(汗吐下三法), prickling-bleeding method(瀉血療法), and emotional therapy(情志療法).

Result : For emotional diseases, he suggested that most should be caused by heart fire(心火) so they should be treated with methods of suppressing heart fire and medication would be using cool and cold herbal drugs which lead to clear heart fire.

Conclusion : Theories of Zhang zi-he(張子和) can be applied to nurturing for modern world maintaining and improving health by his care methods. People these days suffer usually from excess intake or unbalanced diet problem, so wastes matter and pathogenic qi can be driven out of the human body by applying the sweating-vomiting-purgation methods. His medical theories could contribute to modernization of traditional medicine this way.

Key Words : sweating-vomiting-purgation(汗吐下三法), prickling-bleeding method(瀉血療法), emotional therapy(情志療法).

I. 緒論

* 교신저자 : 金重漢,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E-mail : kjhan24@hanmail.net Tel : 051-850-8638
접수일(2012년 7월 27일), 수정일(2012년 8월 9일),

게재확정일(2012년 8월 17일)

張從正(1156~1228년)은 金元四大家의 한 사람으로 字는 子和이고 號는 戴人이며 金代의 睢州 考城人(지금의 河南省 蘭考縣)이다¹⁾. 그의 의학사상의 특징은 『黃帝內經』 『難經』 『傷寒論』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면서, 『千金方』과 『本事方』의 이론을 융합하였으며, 劉河間의 火熱論을 계승하여 널리 의학 이론을 구하였고, 자기 자신이 민간에서 치료한 경험들을 총결하면서 당시까지 전해지고 있던 攻邪療法의 경험들을 흡수하여 스스로 攻下學派의 大家가 되었다²⁾.

또한 그는 劉河間의 六氣致病의 이론을 계승하여 각종 질병이 六淫의 邪氣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인식하면서 질병을 風·寒·暑·濕·燥·火의 六門으로 구분하였고, 六淫 邪氣의 침입으로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그 邪氣를 몰아내는 것을 주된 치료 원칙으로 삼았으니,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汗吐下 三法을 제시하였다³⁾.

저서로는 『儒門事親』 한 권이 있는데, 이 책은 총 1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의 3권은 張從正이 스스로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나머지는 그의 門人인 麻知幾·常仲明과 함께 합작하여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⁴⁾.

그가 생존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不老長生과 房中術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丹砂·硫黃 등의 金石燥熱한 약제를 많이 사용하는 상황이었으며, 宋·金으로 국가의 주체가 변화되는 과정에 兵禍가 해마다 계속되어 溫疫이 유행하면서 熱性질병이 많이 생겼고, 의료에 있어서는 『和劑局方』의 영향으로 補劑와 溫燥한 약물의 사용이 많은 시기였다⁵⁾.

이러한 시기에 張子和는 溫熱한 약제의 과다한 사용과 함께 補藥 위주로 처방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汗吐下 三法을 통하여 체내에 있는 邪氣를 제거

할 것을 기본으로 하는 의학이론을 제시하였다.

현대는 문명의 발달로 인한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지구 오존층의 파괴와 온난화의 문제를 비롯해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불안정의 문제, 육식 등 과도한 고열량의 음식 및 과식으로 인한 체내 노폐물 축적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운동량 등으로 인한 비만 고혈압 당뇨 등 대사성 질환 등이 노정되어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보충할 것인가의 문제보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할 것인가와, 어떻게 하면 과잉 섭취된 열량을 적절히 소모시킬 것인가로 관심의 초점이 이동하는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때 張子和의 주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 汗吐下 三法은 매우 시의적절한 의학이론이라 생각된다.

이외에도 체내 代謝의 부산물이나 과잉된 열에너지를 체외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瀉血療法을 자주 사용하였으며, 특이한 치료법으로는 五行의 相勝하는 이치를 이용하는 情志療法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개괄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져 본 논문을 쓰게 되었다.

지금까지 학계에 발표된 張子和와 관련된 研究論文들을 살펴보면, 金⁶⁾ 등은 張子和의 생애 및 刺血理論에 관한 研究를, 金⁷⁾ 등은 『儒門事親』의 汗法에 관한 研究를, 김⁸⁾ 등은 『儒門事親』의 吐法에 관한 研究를, 金⁹⁾ 등은 『儒門事親』의 下法에 관한 研究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金¹⁰⁾ 등은 『儒門事親』에 관한 판본과 구성에 관한 研究를 발표함으로써, 이전까지의 張子和 관련 論文은 주로 ‘汗法’, ‘吐法’, ‘下法’, ‘刺血療法’, ‘판본과 구성’ 등 張子和의 특징적인 이론을 부분적으로 논하는 쪽으로만 발표되었

1) 洪元植 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p.219.
2) 徐江雁, 許振國. 張子和唐宋金元名醫全書大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92.
3) 李聰甫, 劉炳凡. 金元四大家學術思想研究. 서울. 成輔社. 1985. pp.74-75.
4) 嚴世芸 主編. 金重漢 外4人 共譯. 國譯中醫學術史. 서울. 대성의학사. 2011. p.465.
5) 薛益明. 張從正臨證心法.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p.5-7.

6) 金軍, 尹暢烈. 張子和의 生涯 및 刺血理論에 관한 研究. 대한원전학회지. 2005. 5. pp.205-212.
7) 金基郁, 朴炫局, 鄭庚昊. 『儒門事親』의 汗法에 관한 研究. 대한원전학회지. 2008. 2. pp.1-11.
8) 金基郁, 朴炫局, 金溶珠. 『儒門事親』의 吐法에 관한 研究. 대한원전학회지. 2008. 5. pp.193-200.
9) 金基郁, 朴炫局, 金溶珠. 『儒門事親』의 下法에 관한 研究. 대한원전학회지. 2008. 8. pp.27-36.
10) 金基郁, 朴炫局, 徐志泳. 『儒門事親』의 판본과 구성에 관한 研究. 대한원전학회지. 2008. 2. pp.205-222.

지 전체적인 치료법을 조망할 수 있는 논문이 부족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儒門事親』의 총15권 중 張子和의 醫論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自作으로 알려진 초판 3권까지의 내용¹¹⁾을 종합하여 치료법을 고찰하였다.

II. 張從正의 治療法

張子和는 특히 難治病이나 不治病에 속하는 질병들을 많이 치료하였는데, 그가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大病을 치료하고자 하면서 汗吐下의 三法을 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어찌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으리오!”¹²⁾라고 하여 심한 병일수록 汗吐下 三法을 통하여 치료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張子和는 邪氣를 체외로 몰아내는 방법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기를, 發汗法에 대해서는 “開玄府而逐邪氣”이라고 하였고, 涌吐法에 대해서는 “吐之令其條達”이라고 하였으며, 攻下法에 대해서는 “下者, 是推陳致新也”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汗吐下 三法

張子和는 “질병이라는 것은 사람 몸에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고, 혹은 외부로부터 들어오거나, 혹은 속에서부터 생긴 것이니 모두 邪氣이다.”¹³⁾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汗吐下 三法으로 몰아냄으로써 거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의 醫家들은 『內經』에 나오는 “邪之所湊, 其氣必虛.”¹⁴⁾라는 관점에 얽매어서 正氣의 회복을 먼저 주장하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지금의 의가들이 말하기를 ‘마땅히 먼저 元氣를 단단하게 하여 元氣가 實해지면 邪氣는 스스로 물러

난다.’고 하는데, 세상에 이와 같이 망령된 사람들이 어찌 이리도 많단 말인가! 무릇 邪氣가 사람 몸에 침입하면 가벼운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물러나겠지만, 조금 심한 경우에는 오래되어도 잘 낫지 않거나, 더욱 심한 경우에는 갑자기 죽기도 한다. 만약 먼저 그 元氣를 단단히 할 것을 의논하면서 補劑로 補한다면, 眞氣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 邪氣가 이미 너무 심하게 되어서 제어할 수 없을 것이다. 오직 脈脫하거나 下虛하고, 邪氣나 積이 없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補를 의논하는 것이 옳고, 그 외에 邪氣와 積이 있는 사람에게 補를 의논하는 것은 대개 絲이 洪水에 틀어막는 방법을 사용한 것과 같은 무리이다.”¹⁵⁾라고 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는 방법은 기존의 의가들과는 병을 치료하는 순서에 있어서 완전히 다름을 강조하였으니, “지금 내가 말하는 汗吐下의 三法은 먼저 그 邪氣를 공격할 것을 의논하는 것이니, 邪氣가 물러나면 元氣는 스스로 회복될 것이다.”¹⁶⁾고 하였다. 張子和가 汗吐下의 三法을 통하여 질병을 치료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汗法

張子和는 『素問·陰陽應象大論』에 나오는 “其有邪者, 漬形以爲汗. 其在皮者, 汗而發之.”¹⁷⁾라는 이론을 계승하면서, 張仲景이 『傷寒論』에서 사용한 發汗法에 대한 경험을 발전시켰으며, 汗法의 임상 응용 범위를 확대시키면서 汗法의 치료 내용을 풍부하게 하여 자기만의 독특한 汗法 치료 체계를 세웠다.

『素問·六元正紀大論』에 보면 “火鬱發之.”라는 것이 있는데, 張子和가 설명하기를 “‘發’은 땀을 내

11) 徐江雁, 許振國, 張子和唐宋金元名醫全書大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95.

12)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29). “世人, 欲論治大病, 舍汗下吐三法, 其餘, 何足言哉!”

13)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2). “夫病之一物, 非人身素有之也. 或自外而入, 或由內而生, 皆邪氣也.”

14)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197.

15)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2). “今之醫者曰, ‘當先固其元氣, 元氣實, 邪自去.’ 世間如此妄人, 何其多也! 夫邪之中人, 輕則傳久而自盡, 頗甚則傳久而難已, 更甚則暴死. 若先論固其元氣, 以補劑補之, 眞氣未勝而邪已交馳橫騖, 而不可制矣. 惟脈脫下虛, 無邪無積之人, 始可議補. 其餘, 有邪積之人而議補者, 皆絲湮洪水之徒也.”

16)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2). “今予論吐汗下三法, 先論攻其邪, 邪去而元氣自復也.”

17)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48.

어서 疏散시키는 것이다.”¹⁸⁾고 하였고, 張仲景이 말하기를 “大法, 春夏宜發汗.”¹⁹⁾이라고 하여 春夏에는 陽氣가 외부에 있듯이 人氣와 邪氣도 또한 외부에 있으므로 發汗시키는 것이 옳다고 설명하고 있다.

(1) 적용 병증

張子和在 汗法의 범위를 단순히 체표에 있는 邪氣를 解表하는 약물로 치료하는 것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병증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風寒의 邪氣

이것은 發汗法으로 치료하는 가장 통상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風寒暑濕의 邪氣가 皮膚의 사이로 침입하여 아직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것을 빠르게 제거하려고 할 때 發汗法만한 것이 없다.”²⁰⁾고 하였고, 이것이 좀 더 진행되어 “모든 風寒의 邪氣가 皮膚의 사이에 묵이고, 經絡의 속에 감추어져서 머물러 제거되지 않으면, 간혹 疼痛走注나 麻痺不仁 및 四肢腫痺拘攣이 발생하는데, 發汗을 시켜서 그것을 내보낸다.”²¹⁾고 하여 外感 邪氣로 인해서 생기는 疼痛이나 麻痺증상 및 四肢가 붓고 당기는 증상은 發汗을 시켜서 解表하면 낫는다고 하였다.

② 疥·癬·瘡·癩

『素問·陰陽應象大論』에 보면 “因其輕而揚之”²²⁾라는 내용이 나온다. 張子和在 이것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發揚한다는 것은 이른바 解表하는 것이다. 疥·癬·瘡·癩는 解表해야 하니 發汗시킴으로써 밖으로 빼내는 것이다.”²³⁾고 하였는데, 질병의 위치가

피부에 있는 것은 發汗法을 통하여 邪氣를 밖으로 뽑아내었다.

③ 喉痺·目疾·頭風

앞서 언급한 대로『素問·六元正紀大論』에 “火鬱發之”²⁴⁾라는 내용이 나오며, 이것에 대한 張子和의 설명, 즉 “‘發’이라는 것은 땀이 나오게 하는 것으로 疏散시키고자 하는 것이다.”²⁵⁾고 한 이 대목으로 구체적인 질병에 운용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喉痺’의 병증을 치료한 예를 살펴보면 “무릇 喉痺를 치료하고자 하면, 鍼을 사용하여 出血시키는 것이 최고로 上策이다. 다만 사람들이 鍼을 두려워하여 간곡하게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 된다. ……『銅人』 중에는 또한 灸法도 있지만, 그러나 통증이 미약한 사람에게 쓸 수 있지, 병증이 급속도로 빠른 사람에게 늦게 사용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게 되지 않을까 두렵다. 그러므로 喉痺의 火를 치료하는 것은, 화제가 난 것을 구제해주는 것과 같이 하여 조금도 기다려서는 안 된다. 『內經』에는 ‘火鬱發之’라고 하였는데, ‘發’이라는 것은 發汗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咽喉 중에 있는 것을 어떻게 發汗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出血시키는 것이 이에 發汗시키는 하나의 단서이다.”²⁶⁾고 하였다.

두 번째로 ‘目疾’을 치료한 예를 살펴보면 “『內經』에 말하기를 ‘目得血而能視.’라고 하였는데, 이 한 구절은 聖인이 사람 氣血의 정상적인 모습을 논한 것인데, 後世의 의사들이 그 뜻에 도달하지 못하고 마침내 血을 아끼기를 黃金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라는 설명이 생기게 되었고, 이러한 설명들이 생기면서부터 目疾과 頭風의 모든 증상들은 잘 낫지

18)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8). “發爲汗之, 令其疏散也.”

19) 成無己.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307.

20)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8). “風寒暑濕之氣, 入于皮膚之間而未深, 欲速去之, 莫如發汗.”

21)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2). “諸風寒之邪, 結搏皮膚之間, 藏于經絡之內, 留而不去, 或發疼痛走注, 麻痺不仁, 及四肢腫痺拘攣, 可汗而出之.”

22)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47.

23)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04). “發揚, 所謂解表也. 疥·癬·瘡·癩宜解表, 汗以泄之.”

24)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501-502.

25)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8). “發爲汗之, 令其疏散也.”

26)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56). “大抵治喉痺, 用鍼出血, 最爲上策. 但人畏鍼, 委曲傍求, 瞬息喪命. ……『銅人』中, 亦有灸法, 然痛微者可用, 病速者, 恐遲則殺人. 故治喉痺之火, 與救火同, 不容少待. 『內經』火鬱發之. 發, 謂發汗. 然咽喉中, 豈能發汗? 故出血者, 乃發汗之一端也.”

않게 되었다.”²⁷⁾고 하였다. 張子和在는 血에도 太過와 不及이 있음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血이 太過한 자는 太陽과 陽明이 實한 것이고, 血이 不及한 자는 厥陰이 虛한 것이다. 그러므로 出血시킬 때는 太陽과 陽明이 마땅하니 이 두經에는 血多한 까닭이고, 少陽의 經脈은 出血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血少한 까닭이다. 太陽과 陽明經을 자침하여 出血시키면 눈이 더욱 밝아지고, 少陽經을 자침하여 出血시키면 눈이 더욱 어두워진다. 중요한 것은 太過와 不及하게 되지 않도록 함을 알아서, 이로써 血이 눈을 영양하도록 할 뿐이다.”²⁸⁾고 하였다. 곧 사람의 視力이라는 것은 눈이 血을 얻어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지만, 병적인 증상으로 血이 太過해지거나 不及해지는 경우에는 그것을 적당하게 조절해줌으로써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張子和在는 “目不因火則不病.”이라고 하여 눈에 생기는 대부분의 질병은 모두 火熱과 관련 있다고 설명하면서, “눈이 갑자기 붉어지면서 붓고, 밝은 것을 싫어하면서 깔끄러워지며, 눈물이 흐르는 것이 그치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눈이 가득찬 느낌이 생기는 것은, 모두 火熱이 일으키는 바이다.”²⁹⁾고 하였으며, 그 치료법으로는 “약물에 있어서는 鹹寒한 것을 써서 汗하거나 설사시키고, 鍼에 있어서는 神庭·上星·顙會·前頂·百會를 자침하여 출혈시킨다.”³⁰⁾고 하여 吐法이나 下法을 써서 熱을 빼내기도 하지만, 머리부위에 出血을 시킴으로써 熱을 빼

내기도 하였는데, 여기에서도 血과 汗이 같은 종류로, 瀉血을 시킴으로써 發汗시키는 것을 대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瀉泄

張子和在는 『素問·陰陽應象大論』에 나오는 “春傷於風, 夏生瀉泄.”³¹⁾을 인용하면서 瀉泄은 ‘風’이 근본 원인이 되고, 風은 發汗法이 아니면 몰아내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瀉泄이 그치지 않으면서 밤낮으로 泄瀉하는 것이 일정함이 없고 소화되지 않은 完穀이 나오는 것은 發汗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치료한 경험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러한 병을 앓는 사람이 있었으니, 腹中이 雷鳴하면서 泄注하고 米穀이 그대로 나오면서 小便이 澀滯하였는데, 모두 脾胃가 虛寒한 까닭이라고 말하면서, 豆蔻·烏梅·罌粟殼·乾薑·附子를 썼으나 하나도 효과가 없었고, 中脘과 臍下에 灸를 수십 장 떴더니 燥熱이 더욱 심해져서 小便이 마르고 살이 빠지면서 힘이 없어졌으며, 飲食 먹는 것도 감소하여 나에게 진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나는 ‘陰陽應象大論’에서 熱氣在下, 水穀不分, 化生瀉泄; 寒氣在上, 則生脹脹, 而氣不散³²⁾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었나? 陰은 靜하고 陽은 動하기 때문이라.’라고 말하고는 그의 양쪽 손에서 脈을 진찰해보니 모두 浮大而長하였고 몸의 표면에 微熱이 있어서 桂枝麻黃湯에 薑棗를 넣고 달여서 大劑를 만들어 연달아 세 번 복용시켰더니 하루 종일 땀이 나면서 다음날 아침에 나왔다. 다음으로 胃風湯으로 臟腑를 화평하게 하고 陰陽을 조절하면서 養生하였더니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병이 나왔다.”³³⁾고 기록하고

27)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21). “『內經』曰, 目得血而能視. 此一句, 聖人論人氣血之常也. 後世之醫, 不達其旨, 遂有惜血如金之說. 自此說起, 目疾頭風諸證, 不得而愈矣.”

28)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21). “血太過者, 太陽·陽明之實也; 血不及者, 厥陰之虛也. 故血出者, 宜太陽·陽明, 蓋此二經血多故也. 少陽一經, 不宜出血, 血少故也. 刺太陽陽明出血則目愈明, 刺少陽出血則目愈昏. 要知無使太過不及, 以血養目而已.”

29)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21). “目暴赤腫起, 羞明隱澀, 淚出不止, 暴寒目瞶, 皆火熱之所爲也.”

30)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21). “在藥則鹹寒, 吐之下之. 在鍼則神庭·上星·顙會·前頂·百會, 血之.”

31)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35.

32)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32. 원문에는 “寒氣生瀉, 熱氣生清. 清氣在下, 則生瀉泄; 濁氣在上, 則生脹脹.”라고 되어 있다.

33)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7). “昔有人病此者, 腹中雷鳴泄注, 米穀不分, 小便澀滯, 皆曰脾胃虛寒故耳. 豆蔻·烏梅·罌粟殼·乾薑·附子, 曾無一效. 中脘·臍下, 灸已數十, 燥熱轉甚, 小溲涸竭, 瘦削無力, 飲食減少, 命予視之. 余以謂『應象論』曰, ‘熱氣在下, 水穀不分, 化生瀉泄; 寒氣在上, 則生脹脹, 而氣不散.’ 何也? 陰靜而陽動故也. 診其兩手脈息, 俱浮大而長, 身表微熱, 而桂枝麻黃湯, 以薑棗煎大劑, 連進三服, 汗出終日, 至旦而愈. 次以胃風湯, 和平臟腑, 調養陰陽, 食進病愈.”

있다.

⑤ 熱病

『素問·刺熱』편에 보면 熱病에 五十九刺法을 사용하는 예가 나오는데, 張子和는 이것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聖인이 「刺熱」편의 五十九刺는 藥이 없을 때를 위하여 만든 것으로, 모두 玄府를 열어서 邪氣를 몰아내는 까닭으로 發汗法과 동일하다. 그러나 藥으로 發汗시킴으로써 一毛와 一竅로 하여금 啓發하지 않음이 없어서 빠르게 제거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³⁴⁾고 하여 熱病에도 또한 發汗法을 사용함으로써 鍼刺로 邪氣를 發散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임을 설명하고 있다.

⑥ 悲哭

『素問·陰陽應象大論』에 보면 “其有邪者, 漬形以爲汗.”³⁵⁾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漬形’이라는 것은 일종의 목욕요법으로 溫湯에 들어가서 몸을 따뜻하게 함으로써 땀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다. 張子和는 이 방법으로 小兒가 슬프게 울면서 여러 날이 지나도 그치지 않는 것을 치료했던 경험을 서술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心火가 심해지면서 肺를 업신여길 때, 肺가 그 굴욕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므로 哭하는 것이다. 肺는 悲를 주관하는데, 王太僕이 말하기를 ‘心燥則痛甚’이라고 하였으므로 뜨거운 것이 심할수록 悲도 역시 심해진다. 지금 溫湯에서 목욕을 하여 몸을 담가서 發汗을 시키면, 肺는 皮毛를 주관하니, 汗出하면서 肺熱이 흩어지기 때문에, 목욕을 마치면 울음도 또한 그치는 것이다.”³⁶⁾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張子和의 ‘汗法’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汗者, 麻黃桂枝升麻而已矣.”라고 하여 단지 外感 六淫으로 인한 表邪를 藥

物로만 치료하는 것과는 같은 개념이 아닐 뿐만 아니라, 皮膚病·喉痺·目疾·癩泄·熱病·悲哭 등 다양한 질병에 藥物療法와 함께 鍼刺·瀉血·溫湯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發汗시켰음을 볼 수 있다.

최근에 發汗法의 藥理的인 작용을 현대의학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抗病原微生物작용, 抗炎과 解熱작용, 免疫系를 조정해주는 작용, 鎮靜과 鎮痛작용, 心血管의 생리적인 기능을 높이는 작용, 체표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작용, 祛痰하여 止咳平喘하는 작용, 利尿작용, 소화기능을 개선시키는 작용 등이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³⁷⁾.

(2) 주의사항

① 發汗 藥劑의 선택

『傷寒論』에서는 太陽病의 초기에는 寒邪에 손상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辛溫解表劑를 사용하여 表邪를 발산시켜서 병을 치료하고 있는데, 張子和가 생각하기에 “병든 사람이 熱이 심한데 다시 辛溫한 약제를 사용하면 病이 반드시 더욱 심해질 것이다.”³⁸⁾고 생각하여 辛溫한 약물과 辛涼한 약물을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강조하였으니,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發汗劑 중 辛溫藥物과 辛涼藥物 사용의 구분점

구분	辛溫藥物	辛涼藥物
지역	朔方之地 多寒	南陲之地 多熱
계절	子丑之月 多凍 (음력 11-12월)	午未之月 多暑 (음력 5-6월)
병인	冒寒食冷而得者	勞役冒暑而得者
나이	老者 氣衰之人	少壯 氣實之人
품성	稟性和緩者	稟性怒急者
진맥	兩手脈遲緩者	兩手脈浮大者

만약 辛涼한 약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辛溫한 약제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는 “妄妄 發狂, 譫語, 衄血, 泄血, 喘滿, 昏瞶, 懊懣, 悶亂, 勞復의 병증이 생기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병증은 傷寒病에 걸렸을

34)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6). “聖人之「刺熱」五十九刺, 爲無藥而設也. 皆所以開玄府而逐邪氣, 與汗同. 然不若以藥發之, 使一毛一竅, 無不啓發之爲速也.”

35)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48.

36)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210-211). “心火甚而乘肺, 肺不受其屈, 故哭. 肺主悲, 王太僕云, 心燥則痛甚, 故燥甚悲亦甚. 今浴以溫湯, 漬形以爲汗也. 肺主皮毛, 汗出則肺熱散矣, 浴止而啼亦止.”

37) 蕭國綱. 儒門事親研究.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8. p.42.

38)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11). “病人熱甚, 更以辛溫, 則病必轉加.”

때 즉시 생기는 증상들이 아니고, 모두 辛溫한 약제를 써서 낫지 않고 熱이 극도로 심해지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³⁹⁾고 하였다.

② 發汗의 禁忌法

張子和는 發汗法의 禁忌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表虛로 인한 亡陽 증상을 다시 發汗시키면 죽는다고 보았다.⁴⁰⁾

둘째, 汗은 血과 同類로 보았기 때문에 亡血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發汗시키는 것을 금지하였다.⁴¹⁾

셋째, 傷寒을 치료할 때 여섯 가지 禁하는 법 중에 發汗의 禁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 汗法을 쓸 때에는 마땅히 계절적으로 寒暑를 상세히 살펴서 이불이나 옷의 厚薄을 조절하고, 뜨거운 온천에서 沐浴하거나 熱粥과 燔鍼으로 거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두 번째이다. 汗法을 쓸 때에는 마땅히 脈의 遲數을 상세하게 이해하여 辛涼한 약제를 사용할 것이요 熱藥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세 번째이다. …… 크게 汗을 낸 이후에는 먹고 싶은 것을 아무거나 먹게 한다든지, 근심 걱정으로 피로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여섯 번째이다.”⁴²⁾고 하였다.

넷째, 땅바닥을 데워서 그 위에 약물을 깔고 熏蒸해서 汗을 내는 방법인 玲瓏竈法은 血熱病이 있는 자에게는 금지시켰는데, 만약 사용한다면 반드시 병이 더욱 심해진다고 하였다.⁴³⁾

다섯째, 發汗의 방법 중의 하나로 出血시키는 것에 대한 금기를 살펴보면, “少陽經은 出血시키는 것이 옳지 않으니 血少한 까닭이다. 太陽經과 陽明經에 刺鍼하여 出血시키면 눈이 더욱 밝아지지만, 少陽經에 刺鍼하여 出血시키면 더욱 어두워진다.”⁴⁴⁾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雀目과 같이 밤눈이 어둡거나 內障이 생기는 것은, 暴怒하거나 大憂한 까닭으로 생기는 것이다. 대개 肝은 目を 주관하고 血少해서 생기는 것이니 出血을 금지하고, 다만 補肝養腎하는 것이 마땅하다.”⁴⁵⁾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張子和는 다양한 방법으로 發汗을 시키면서 禁忌하는 것에 있어서도 엄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發汗의 程度

張子和는 發汗法을 사용할 때 그 量에 주의를 기울였는데, “무릇 發汗시킬 때에는 온 몸에 熨熨하게 汗이 나도록 해야지 물방울이 떨어지듯 汗이 나게 해서 안 된다. 手足과 함께 온 몸에 두루 汗이 나오도록 하면서 1~2時辰이면 제일 좋다.”⁴⁶⁾고 대원칙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發汗法을 구체적인 병증에 적용할 경우에는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아니하고, 병증에 따라 變形하게 變形하여 사용하였으니, 병증에 따른 구체적인 發汗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面腫風과 같은 경우에는 ‘微汗’ 해야 된다고 하였다.

둘째, 風癩, 酒病, 癩泄과 같은 경우에는 ‘汗出如洗’ 하듯이 많이 흘려야 치료된다고 하였다.

셋째, 癩病으로 머리카락과 눈썹이 모두 탈락되고 피부가 나무껍질처럼 거칠어진 경우에 ‘大發汗’

39)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11). “往往發狂譫語, 衄血泄血, 喘滿昏昏, 懊惱悶亂, 勞復. 此數證, 非傷寒便有此狀, 皆由辛溫之劑, 解之不愈, 而熱增劇, 以致然也.”

40)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7). “表虛亡陽, 發汗則死.”

41)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267). “若犯諸亡血之證者, 不可發汗.”

42)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13). “…… 當汗之時, 宜詳時之寒暑, 用衾衣之厚薄, 禁沐浴之火炕, 重被熱粥燔鍼, 二禁也. 當汗之時, 宜詳解脈之遲數, 用辛涼之劑, 禁妄用熱藥, 三禁也. …… 大汗之後, 禁雜食嗜慾, 憂思作勞, 六禁也.”

43)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9). “余又作玲瓏竈法薰蒸, 血熱病, 必增劇.”

44)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21). “少陽一經, 不宜出血, 血少故也. 刺太陽陽明出血則目愈明, 刺少陽出血則目愈昏.”

45)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22). “如雀目, 不能夜視及內障, 暴怒大憂之所致也. 皆肝主目, 血少, 禁出血, 止宜補肝養腎.”

46)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7). “凡發汗, 欲周身熨熨然, 不欲如水淋漓, 欲令手足俱, 周遍汗出, 一二時爲佳.”

시킴으로써 치료한 경우도 있다.

또한 發汗을 시키는 속도에 있어서, “만약 汗을 갑작스럽게 나오게 하면 邪氣가 대부분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중복해서 發汗을 시키게 되면 亡陽으로 빠지게 된다.”⁴⁷⁾고 주의를 주었으며, “무릇 發汗시킬 때에는 病에 적중하면 그치고 藥劑를 다 먹일 필요는 없다.”⁴⁸⁾고 하였으니, 이러한 것들은 張子和가 臨床에서 장기간 경험하면서 체득한 것으로써, 投藥한 이후에는 수시로 관찰하면서 病情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가장 적적할 치료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吐法

韓醫學에서 吐法을 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필 수 있는데, 첫째는 病位와 관련된 것으로 『素問·陰陽應象大論』에 보면 “其高者, 因而越之.”⁴⁹⁾라고 하여 질병이 上部에 있으면 涌吐法을 써서 치료해야 한다고 하였고, 둘째는 病因과 관련된 것으로 『素問·六元正紀大論』에 보면 “木鬱達之.”⁵⁰⁾라고 하여 胸膈이나 胃脘 부위에 痰飲이나 宿食이 있어서 肝木의 疏泄기능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涌吐法을 써서 條達시켜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涌吐法은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니, 張子和가 말하기를 “『名醫錄』 중에 오직 太倉公·華元化·徐文伯이 규율에 밝아서 그것을 사용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이러한 방법이 폐기된 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⁵¹⁾고 하였다.

그렇다면 涌吐法이 사라지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張子和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 때문인 것으

로 파악하였는데, “무릇 吐하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이니, 장차 순조롭게 下法을 쓴다고 해도 오히려 좋아하지 않거늘 하물며 거슬러서 吐法을 쓰겠다니 어땠겠는가! 좋아하지 않는 자가 많다.”⁵²⁾라고 하여 예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涌吐法이 사라지게 된 이유가 사람들의 심리와 관련됨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胸部 이상이 大滿·大實하여 病邪가 膠粥과 같이 끈끈하게 있는 것을, 미약한 丸이나 散으로 치료하려는 것은 모두 어린아이의 장난에 불과하니, 吐法이 아니라면 질병에서 어찌 벗어날 수 있겠는가?”⁵³⁾라고 하여 病邪가 胸部에 있을 때에 일반적인 처방을 써서 치료하는 것은 치료의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설명하고 있다.

『儒門事親』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근거하자면 그가 吐法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偶然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예전에 病邪가 上部에 있는 환자를 보았는데, 모든 의가들이 그 기량을 다하여도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나는 반대로 생각하여 涌劑를 투여하기를 조금씩 하였더니 매우 徵驗이 있었다.”⁵⁴⁾고 하여 당시의 醫家들이 涌吐法의 사용법에 어두웠으며, 『內經』에서 말한 “其高者, 因而越之.”라는 이론에 근거하여 이것을 임상에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이미 오래 반복되면서 널리 물어 많은 처방들을 구하게 되었고, 점점 精妙함에 이르게 되어 지나치다 싶으면 그치고 모자란다 싶으면 더 약물을 주었으니, 한 번 吐하는 중에도 변화가 끝이 없었고, 여러 번 사용하여 경험이 누적되면서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⁵⁵⁾고 하여 자신이 涌吐法을 사용하게

47)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7). “若汗暴出, 邪氣多不出, 則當重發汗, 則使人亡陽.”

48)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7). “凡發汗, 中病則止, 不必盡劑.”

49)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47.

50)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501.

51)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4). “『名醫錄』中, 惟見太倉公·華元化·徐文伯, 能明律用之, 自餘無聞, 乃知此法, 廢之久矣.”

52)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3). “夫吐者, 人之所畏, 且順而下之, 尚猶不樂, 況逆而上之! 不說者多矣.”

53)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3). “然自胸已上, 大滿大實, 病如膠粥, 微丸微散, 皆兒戲也. 非吐, 病安能出?”

54)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4). “曾見病之在上者, 諸醫, 盡其技而不效. 余反思之, 投以涌劑, 少少用之, 頗獲徵應.”

55)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4). “既久, 乃廣訪多求, 漸臻精妙, 過則能止, 少則能加, 一吐之中, 變態無窮, 屢用屢驗, 以至不疑.”

된 것이 어쩌다 한두 번 사용해보고 효과가 있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하여 경험하면서 확신을 얻게 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張子和는 이러한 치료 경험들을 다양한 병증에 적용함으로써 자기만의 독특한 이론을 만들게 되었으니, 그가 涌吐法을 통하여 치료했던 병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적용 병증

張子和는 吐法의 치료 기전을 설명함에 있어서 “무릇 吐法을 써서 條達시킬 수 있는 것은 한갓 木鬱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上部에 있는 것은 모두 吐法이 마땅하다.”⁵⁶⁾고 하는 대원칙 하에 胸部 이상에 있는 邪氣를 제거할 목적으로 많은 병증에 응용하여 사용하였다.

그가 설명하기를 “張仲景의 『傷寒論』에 나오는 胸上에 있는 모든 實鬱證으로 인하여 통증이 잘 낫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부위를 누르면 침을 뱉으면서 下痢를 여러 차례 하며, 그 脈이 沈遲하면서 寸口脈이 微滑한 자는 吐法을 쓰는 것이 옳으니 吐시키면 낫는다.”⁵⁷⁾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胸上諸實, 按之及有涎唾’라는 설명이 곧 邪氣가 上部에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또한 계속해서 『內經』에 나오는 문장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下痢하면서 脈遲하면서 滑한 것은 內實한 것이고, 寸口脈이 微滑한 것은 上實한 것이니, 모두 吐法을 쓰는 것이 옳다.”⁵⁸⁾고 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張仲景의 말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宿食이 上脘에 있으면 마땅히 吐시켜야 한다.”⁵⁹⁾고 하였고, 또한 “宿飲과 酒積이 上脘에 있는 자도 역시 마땅히 吐시켜야 하고, 中脘에 있는

자는 마땅히 下法을 써서 제거해야 한다.”⁶⁰⁾고 하였으며, “환자가 手足厥冷하면서 양쪽 手脈이 잠깐 結하면 客氣가 胸中에 있는 것이니, 心下滿하면서 煩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여도 잘 먹지 못하는 자는 病邪가 胸中에 있음을 알 수 있으니 마땅히 吐시켜야 한다.”⁶¹⁾고 하였으니,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涌吐法을 통하여 風痰이나 宿食 및 積聚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병증들을 치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吐法을 현대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中樞神經을 강렬하게 자극하여 인접한 神經中樞의 활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신경조절기능을 활발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 嘔吐로 인한 胃腸 및 全身活動의 변화로는 肌肉이 강렬하게 수축함으로써 胸腹腔의 압력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고, 호흡운동과 혈액 및 임파순환이 증가하며, 胸腹腔 중에 있는 臟器의 기능이 변화하고, 脫水로 인하여 體液 분포에 변화가 오는 등등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⁶³⁾.

(2) 催吐시키는 방법

① 藥物療法

藥物로 催吐시키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三聖散이나 稀涎散 등과 같이 약효가 강한 약제를 사용하여 비교적 극렬하게 涌吐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瓜蒂散이나 獨聖散 및 심지어 白米飲이나 鹽水 등과 같이 약효가 비교적 가벼운 것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涌吐시키는 것이 있다.

② 療痰法

당시의 사람들은 張子和의 涌吐法을 많이 사용하

56)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4). “凡可吐條達者, 非徒木鬱然, 凡在上者, 皆宜吐之.”

57)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4). “仲景之論, 胸上諸實鬱, 而痛不能愈, 使人按之, 及有涎唾, 下痢十餘行, 其脈沈遲, 寸口脈微滑者, 此可吐之, 吐之則止.”

58)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4). “下痢, 脈遲而滑者, 內實也; 寸口脈微滑者, 上實也, 皆可吐之.”

59) 成無己.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388. “宿食在上脘, 當吐之.”

60)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4). “宿飲·酒積, 在上脘者, 亦當吐之; 在中脘者, 當下而去之.”

61)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4-135). “病人手足厥冷, 兩手脈乍結, 以客氣在胸中, 心下滿而煩, 飲食不能食者, 知病在胸中, 當吐之.”

62) 成無己.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287. “病人, 手足厥冷, 脈乍緊者, 邪結在胸中, 心下滿而煩, 飢不能食者, 病在胸中, 當須吐之. 宜瓜蒂散.”

63) 蕭國綱. 儒門事親研究.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8. p.64.

였지만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는데, 그가 말하기를 “지금 사람들 중에는 또한 내가 사용하는 방법을 몰래 엿보고는 사용하는 자가 있는데, 결국 내 입으로 직접 전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혹 적중하기도 하였지만 혹은 효과가 없었고, 혹은 涌吐를 시켰는데도 내용물이 나오지 않거나, 혹은 내용물이 나오는 것이 그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⁶⁴⁾고 하여 涌吐法을 사용하는 것이 단순히 약물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만을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涌吐法을 쓸 때 ‘擦痰’이라는 방법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擦’라는 것은 스스로 체득하여 ‘움켜쥐거나 놓아주는 타이밍’과 ‘말았다 뱉다하는 기술’이 있는 것을 말한다.”⁶⁵⁾고 하여 끊임없이 반복해서 체득해야 알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보면, “내가 擦痰하는 방법은 釵股(비너)나 鷄翎으로써 探引하여 나오지 않으면 蠶汁(옛날 중국 사람들이 흔히 먹던 맛이 아주 신 溼蠶汁)을 투여하는 것이다. 蠶汁을 투여하여도 吐하지 않으면 다시 투여하는데, 계속해서 투여하거나 探引하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없다.”⁶⁶⁾고 하여 ‘擦痰’하는 방법은 涌吐하는 약물을 복용한 이후에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舌根이나 咽喉部를 자극함으로써 催吐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기타

張子和는 “引涎·瀉涎·噉氣·追淚와 같이 모든 上行시키는 것은 다 吐法이다.”⁶⁷⁾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引涎法은 입으로 침(涎)이 나오게 하는 방

법으로 여러 곳에서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사용례를 살펴보면, 잇몸 질환으로 잇몸에 통증이 있거나 이빨이 흔들리는 경우에 사용하는 ‘牙宣藥’의 경우에 “葶撥·胡椒·良薑·乳香·麝香·細辛·青鹽·雄黃을 각등분하여 가늘게 가루로 만든 다음에, 먼저 따뜻한 물로 입안을 깨끗이 씻은 후 가루로 만든 藥을 痛處에 바르면 끈끈한 침이 흘러나오고, 吐하는 게 그치고 나서 입안을 수십 차례 양치하면 통증이 그친다.”⁶⁸⁾고 하였다.

둘째, 瀉涎法의 ‘瀉’은 ‘滲’의 뜻으로, 입을 열지 못하는 환자에게 코를 통하여 약물을 주입하여 스며들게 함으로써 涎이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그 사용례를 살펴보면 “不省人事하고 牙關緊閉하여 粥菜도 마실 수 없는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三聖散을 달여서 코 속으로 흘려보내어 涎을 吐出시킴으로써 입이 스스로 열리도록 하는 것이다.”⁶⁹⁾고 하였다.

셋째, 噉氣法은 곧 코 속을 자극하여 제체기를 유발함으로써 邪氣를 몰아내는 방법이다.

넷째, 追淚法은 곧 催淚法을 가리키는 것으로, 眼內障이 있을 경우에 鏡子로 眼藥을 만들어서 眼內眥에 넣음으로써 눈물이 흐르면서 낫도록 하는 것이다.

(3) 금기 및 조리법

① 禁忌法

涌吐시키는 방법은 당시에 잘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었고, 사람들의 심리도 吐를 시켜서 치료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기 때문에 吐法을 사용할 때에는 신중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 방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病症 방면에 있어서 금기사항을 보면, “스스로 吐하면서 그치지 않아서 亡陽하고 血虛한 자

64)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5). “今人, 亦有竊予之法者, 然終非口授, 或中或否, 或涌而不能出, 或出而不能止.”

65)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5). “豈知上涌之法, 名曰擦痰? 擦之一字, 自有擒縱卷舒.”

66)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5). “余之擦痰者, 以釵股鷄翎, 探引不出, 以蠶投之. 投之不吐, 再投之, 且投且探, 無不出者.”

67)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3). “如引涎·瀉涎·噉氣·追淚, 凡上行者, 皆吐法也.”

68)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336-337). “葶撥·胡椒·良薑·乳香另研·麝香·細辛·青鹽·雄黃, 以上各等分, 右爲細末. 先以溫漿水刷淨, 後用藥末於痛處擦, 吐出頑涎, 休吐了, 漱數十次, 痛止.”

69)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81). “如不省人事, 牙關緊閉, 粥菜不能下者, 煎三聖散, 鼻內灌之, 吐出涎, 口自開也.”

는 吐法을 쓰지 마라. 모든 吐血·嘔血·咯血·衄血·嗽血·崩血·失血하는 자는 吐法을 쓰지 마라.”⁷⁰⁾고 하여 ‘亡陽’이나 ‘血虛’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다.

둘째, 體質이나 年齡과 관련된 금기사항을 보면, “病勢가 험준하고 위험한 노약자나 기운이 쇠약한 자는 吐法을 쓰지 마라.”⁷¹⁾고 하였다.

셋째, 張子和는 특이하게 환자의 심리상태나 정신자세에 대해서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성격과 행동이 사나워서 怒하길 잘하고 淫亂한 사람은 吐法을 쓰지 마라. 주위에 떠들어대는 말이 많으면 吐法을 쓰지 마라. 환자가 醫書를 많이 읽었지만 실제로 깊이 이해하지 못한 자에게는 吐法을 쓰지 마라, 病을 가지고 있는 자가 邪氣와 正氣에 대한 설명을 구별하지 못하면 吐法을 쓰지 마라. 환자가 바른 性情이 없어 妄言과 妄從을 하면서 反覆하면서 일정함이 없는 자는 吐法을 쓰지 마라.”⁷²⁾고 하였다.

만약 위와 같은 경우에 “吐法을 쓰면 전변하여 다른 病이 생기면서 점점 구할 수 없게 되어 도리어 誹謗이 일어날 수 있는 단서가 된다.”⁷³⁾고 보았으며, 계속해서 말하기를 “비록 간절하게 요구하더라도 삼가 마지못해 따르지 마라. 한 번의 실수라도 있으면 더욱 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방법을 不信하게 만들 것이니, 작은 不善으로써 大善에 累가 될 수가 있겠는가!”⁷⁴⁾라고 하여 당시의 사람들이 吐法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비방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중을 기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② 調理法

吐法을 쓰는 횟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체력이 강한 자는 한 번 크게 吐하게 하여 안정시키는 것도 가능하지만, 체력이 弱한 자는 3차로 나누어서 吐하게 하면 거의 손상이 없을 것이다.”⁷⁵⁾고 하였고, 예후를 살필 때 “吐한 다음날 갑자기 상쾌해지는 자도 있지만, 더 심해지는 자도 있는데 探引하여 吐한 것이 아직 평상시로 회복하는데 이르지 못한 까닭이니 며칠 기다려서 다시 涌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⁷⁶⁾고 하였으며,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으니 “涌吐하는 藥은 丸으로 만들거나 散으로 만들어서 病에 적중하면 그치고 반드시 약을 다 먹을 필요는 없으니 지나치면 사람을 손상시킨다.”⁷⁷⁾고 하였다.

張子和는 吐法을 쓴 이후에 환자가 원하는 것을 먹이도록 하였으니 “만약 渴症을 느끼면 冰水·新水·瓜·梨·柿 및 涼物을 모두 禁하지 않는다.”⁷⁸⁾고 하여 차가운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 다만 “오직 飢食이나 지나치게 飽食하는 것을 금하고, 硬物·乾脯와 같이 소화시키기 어려운 물건을 금한다.”⁷⁹⁾고 하였으며, 吐法을 쓴 이후에는 “心火가 이미 하강하고, 中脘이 沖和로우면 陰道가 반드시 강성해질 것이니 房勞하는 것을 크게 금하고, 크게 근심하거나 슬픈 생각하는 것을 금한다.”⁸⁰⁾고 하였으며,

70)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6). “自吐不止, 亡陽血虛者, 不可吐; 諸吐血·嘔血·咯血·衄血·嗽血·崩血·失血者, 皆不可吐.”

71)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6). “病勢熾危, 老弱氣衰者, 不可吐.”

72)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6). “性行剛暴, 好怒喜淫之人, 不可吐; 左右多嘈雜之言, 不可吐; 病人頗讀醫書, 實非深解者, 不可吐; 主病者, 不能辨邪正之說, 不可吐; 病人, 無正性, 妄言妄從, 反覆不定者, 不可吐.”

73)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6). “吐則轉生他病, 寢成不救, 反起謗端.”

74)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6). “雖懇切求, 慎勿強從. 恐有一失, 愈令後世不信此法, 以小不善, 累大善也!”

75)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5). “強者, 可一吐而安; 弱者, 可作三次吐之, 庶無損也.”

76)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5). “吐之次日, 有頓快者, 有轉甚者, 蓋引之而吐未平也, 俟數日, 當再涌之.”

77)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4). “涌吐之藥, 或丸或散, 中病則止, 不必盡劑, 過則傷人.”

78)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5). “如覺渴者, 冰水·新水·瓜·梨·柿, 及涼物, 皆不禁.”

79)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5). “惟禁飢食過飽, 硬物乾脯, 難化之物.”

80)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5-136). “心火既降, 中脘沖和, 陰道

吐法으로 생긴 후유증들은 이러한 금기법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것이지만, “病人이 이미 스스로의 잘못을 탓하진 않고, 여러 사람들과 의논하여 그것에 대하여 떠들어대고, 吐法의 탓이라고 죄를 돌리면서 誹謗하는 것은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⁸¹⁾고 하였다.

3) 下法

『素問陰陽應象大論』에 보면 “因其重而減之 …… 其下者, 引而竭之. 中滿者, 瀉之於內. …… 其實者, 散而瀉之.”⁸²⁾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攻下法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다.

張子和가 『內經』의 치료법을 이해한 것을 살펴보면, “『內經』이라는 책은 오직 氣血이 잘 流通되는 것을 귀중하게 여겼는데, 세속의 庸工들은 오직(補하여) 閉塞시키는 것을 귀중하게 여긴다.”⁸³⁾고 하면서 ‘氣血流通’을 최고로 귀중한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攻下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으니, “下法을 쓰는 것을 瀉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內經』에서 말하는 下法은 이른바 補가 되는 것임을 어찌 알겠는가? 陳莖가 제거되면 腸胃가 깨끗해지고, 癥瘕가 사라지면 榮衛의 순환이 창성해질 것이니, 補하지 않는 중에 진정한 補가 존재하는 것이다.”⁸⁴⁾고 하여 몸속에 邪氣가 있을 경우에 攻下法을 쓰는 것은, 곧 노폐물을 체외로 배설시켜 ‘推陳致新’ 함으로써 氣血의 순환을 돕는 것이니, 이것이 진정한 補가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攻下法에 대한 현대 의학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腸道의 추진기능을 증강시키는 작용, 肝 기능을 보

호하고 利膽시키면서 淸胰시키는 작용, 혈액의 순환을 개선시켜주는 작용, 腎臟 기능을 보호하고 이뇨 작용을 도와주며, 호흡 기능과 抗菌·消炎·解熱작용,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장부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보았다⁸⁵⁾.

(1) 적용 병증

『素問·六元正紀大論』에 보면 또한 “土鬱奪之”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王冰의 주석을 살펴보면 “奪은 下法을 써서 막히는 것이 없도록 하라는 말이다.”⁸⁶⁾고 하여 脾胃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張子和는 이것을 해석하기를 “大人이나 小兒 가릴 것 없이 일체의 손상시키는 물질이 胃脘에 있어서, 양쪽 손의 脈이 ‘遲而滑’한 것은 속에 實邪가 있는 것이니 下法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⁸⁷⁾고 하였으며, 계속해서 말하기를 “무릇 宿食이 胃脘에 있는 것을, 모두 下法을 써서 제거하면 三部의 脈이 평해지는데, 만약 心下를 손으로 눌렀을 때 硬滿한 자는 여전히 다시 下法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⁸⁸⁾고 하여 中焦에 있는 宿食을 제거하면 脈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心口 부위를 손으로 눌렀을 때 압통도 없어야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그 응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傷寒을 크게 汗法을 써서 병을 풀 이후에, 거듭 勞症이 발생하여 病이 되는 자는, 대개 下法을 쓴 이후에 熱氣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까닭이니 마땅히 다시 下法을 써야 한다.”⁸⁹⁾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만약 雜病으로 腹中이

必強, 大禁房勞·大憂·悲思.”

81)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6). “病人既不自責, 衆議因而噪之, 歸罪于吐法起謗, 其由此也.”

82)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47-48.

83)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9). “『內經』一書, 惟以氣血流通爲貴; 世俗庸工, 惟以閉塞爲貴.”

84)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39). “止知下之爲瀉, 又豈知『內經』之所謂下者, 乃所謂補也? 陳莖去而腸胃潔, 癥瘕盡而榮衛昌, 不補之中, 有眞補者存焉.”

85) 蕭國鋼. 儒門事親研究.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8. pp.91-95.

86)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502. “奪謂下之, 令無壅礙也.”

87)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40). “大人小兒, 一切所傷之物, 在胃脘, 如兩手脈, 遲而滑者, 內實也, 宜下之.”

88)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40). “凡宿食在胃脘, 皆可下之, 則三部脈平. 若心下按之而硬滿者, 猶宜再下之.”

89)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40). “如傷寒, 大汗之後, 重復發而爲病者, 蓋下之後, 熱氣不盡故也, 當再下之.”

그득하고 痛症이 그치지 않는 자는 속에 實邪가 있는 것이다. 『金匱要略』에서 말하기를 ‘痛症이 있으면서 腹滿할 때, 손으로 눌러서 통증이 없는 것은 虛한 것이고 통증이 있는 것은 實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難經』에서도 말하기를 痛症이 있는 것은 實한 것이라고 하였다. 腹中이 그득하면서 통증이 있는 것은 속이 막혀 있어서 實한 것이므로 下法을 쓸 수 있는데, 雜病이든 傷寒이든 상관없이 모두 빨리 下法을 쓰는 것이 마땅하니, 大承氣湯이나 導水丸 혹은 泄水丸 등의 약물로 10여 회 정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통증이 그치지 않으면 또한 다시 복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통증이 그치면 약물 복용을 그친다.”⁹⁰⁾고 하여 통증이 그치는 것으로 속에 있는 邪氣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다.

특히 產後 치료에 대해서 당시의 잘못된 치료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면서 주의를 많이 주었으니, “婦人의 출산한 이후의 질병은 모두 ‘敗血’과 ‘惡物’로 인하여 寒熱을 일으키고, 臍腹이 당기는 통증이 생기며, 乳汁이 마르고 음식 먹는 것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의사된 자들이 자세히 살피지 않고, 모든 것을 產後에 出血을 많이 하여 ‘氣血이 모두 虛해져서 그런 것’이라 여겨, 곧바로 溫熱한 약제를 사용하여 養血하고 補虛하면서 다만 寒이 원인인 것으로 삼아 치료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한다.”⁹¹⁾고 하여 產後에 주로 溫熱한 약제로 補하는 폐단을 비판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출산한 이후라고 하여 삼가 모든 것이 虛하고 不足한 것으로 여겨서 치료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반드시 변하여 骨蒸寒熱, 飲食不入, 肌膚瘦削,

經水不行하는 증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內經』에서 말하기를 ‘寒하면 飲食 먹는 것이 줄어들고, 熱하면 肌肉이 빠진다.’고 하였는데, 사람이 병이 들어서 수척해지는 것은 모두 粗工이 藥物로 消燼시켰기 때문이다.”⁹²⁾고 하여 燥熱한 약제로 인하여 다른 여러 가지 병증들이 더 생길 수 있음을 주의 주었으며, 그 치료법으로 제시하기를 “세속에서는 마침내 黑神散⁹³⁾의 종류로 產後의 18證을 치료하는데, 병증이 낫지 않을 뿐만 아니라 經脈이 마르면서 막히고, 大便秘結이나 小便淋瀝의 증상이 생기며, 嘔吐하고 痰을 내뱉는 모든 熱證이 생기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잘못해서 죽는 자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데, 어찌 四物湯과 涼膈散을 적당히 조절하여 크게 湯劑로 만들어서 下法을 써서 여러 번 下利시키지 않는단 말인가? 惡物이 모두 제거된 이후에 淡甘한 약제를 복용하면 저절로 나올 것이다.”⁹⁴⁾고 하여 먼저 邪氣를 제거한 이후에 서서히 補할 것을 설명하였다.

(2) 금기 및 주의사항

張子和는 攻下法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重證 질병들을 많이 치료하였는데, 다음 몇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攻下法을 사용하는데 있어 신중할 것을 당부하였다.

① 表證

첫째, “傷寒으로 脈浮한 자는 下法을 써서는 안 된다.”⁹⁵⁾고 하였다.

90)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40). “若雜病, 腹中滿, 痛不止者, 此爲內實也. 『金匱要略』曰, 痛而腹滿, 按之不痛爲虛, 痛者爲實. 『難經』曰, 痛者爲實. 腹中滿痛, 裏壅爲實, 故可下之, 不計雜病. 傷寒, 皆宜急下之, 宜大承氣湯, 或導水丸, 或泄水丸等藥, 過十餘行. 如痛不已, 亦可再服, 痛已則止.”

91)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25). “婦人, 產餘之疾, 皆是敗血惡物, 發作寒熱, 臍腹攢痛, 乳澆枯涸, 食飲稍減. 醫者不察, 便謂產後出血數斗, 氣血俱虛, 便用溫熱之劑, 養血補虛, 止作寒治, 舉世皆然.”

92)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40). “產後, 慎不可作諸虛不足治之, 必變作骨蒸寒熱, 飲食不入, 肌膚瘦削, 經水不行. 『經』曰, 寒則衰飲食, 熱則消肌肉. 人病瘦削, 皆粗工, 以藥消燼之故也.”

93) 黑神散: 약물 구성은 “百草霜 白芷 各等分. 右爲末, 每取二大錢, 清酒, 童便, 各半盞, 入麝香少許, 同煎沸, 熱服.”한다. 百草霜은 山草를 연소하여 숯 밑에 생긴 매연, 혹은 아궁이 속에 있는 黑灰의 분말. 이는 百草를 연소하여서 얻은 것이 가벼운 霜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94)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25). “世俗, 竟傳黑神散之屬, 治產後一十八證, 非徒其不愈, 則經脈滯閉, 前後淋瀝, 嘔吐噦痰, 凡百熱證生矣. 若此誤死者, 不可計之, 曷若四物湯與涼膈散停對, 大作湯劑, 而下之利以數行? 惡物俱盡後, 服淡甘之劑, 自愈矣.”

둘째, “傷寒에 걸렸을 때에는 여섯 가지 금지하는 것이 있는데, 처음 病이 들었을 때 中酒나 傷食의 증상과 매우 유사하니, 이때에는 크게 下法을 쓰는 것을禁한다.”⁹⁶⁾고 하였다.

셋째, “表症이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크게 下法을 쓰는 것은 불가하다. 만약 下法을 쓴다면 胃中이 空虛해질 것이다.”⁹⁷⁾고 하였다.

② 純虛無邪

첫째, “모든 洞泄하면서 寒中한 자는 下法을 써서는 안 되는데, 세속에서 말하는 休息痢이다.”⁹⁸⁾고 하였다.

둘째, “表裏가 모두 虛한 자는 下法을 써서는 안 된다.”⁹⁹⁾고 하였다.

셋째, “『內經』 중에 있는 五痞心證은 下法을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¹⁰⁰⁾고 하였다.

넷째, “厥症이 있으면서 脣靑하고 手足冷할 때, 內熱이 심한 자는 下法이 마땅하겠지만, 寒한 자는 下法을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脈으로써 그것을 구별한다.”¹⁰¹⁾고 하였다.

다섯째, “만약 十二經의 敗衰가 심하다면 또한 下法이 옳지 않고, 다만 調養하는 것이 마땅하니 溫한 것으로써 그것을 調和시킨다. 만약 下法을 쓰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잘못되게 만들 것이다.”¹⁰²⁾고

하였다.

③ 老人, 幼兒, 孕婦, 虛弱者

첫째, “만약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衰弱하여 虛한 중에 積聚가 있는 자는, 단지 5일에 한 번 萬病無憂散을 복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릇 오래된 질환을 어찌 한 번 약을 써서 낫게 할 수 있겠는가? 곧 조금씩 사용하여 제거하는 것이 옳다.”¹⁰³⁾고 하였다.

둘째, “小兒가 속으로 泄瀉를 하는 것이 변하여 慢驚風이 생김으로써 양쪽 눈을 치켜뜨고 食指의 魚口 부위에서 邪氣가 나오는 자도 또한 下法이 옳지 않다.”¹⁰⁴⁾고 하였다.

셋째, “脈이 비록 滑大하더라도 妊娠을 하였다면 감히 攻下法만을 쓸 수는 없으니 飲食으로써 그것을 치료한다.”¹⁰⁵⁾고 하였다.

넷째, “沈積이 오래 되어서 몸이 많이 羸劣한 자는, 다시 한갓 공격하는 약만을 쓸 수는 없다.”¹⁰⁶⁾고 하였다.

張子和는 위에서 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은 질병에 攻下法을 사용하였는데, 그가 말하기를 “만약 위에서 말한 것들 이외에 大積大聚하거나 大病大祕하거나 大滯大堅한 것들은 攻下하는 약물이 이에 補藥인 것이다. 내가 일찍이 말한 ‘瀉法兼補法’이라는 것이 진실로 이것을 말하는 것인저!”¹⁰⁷⁾라고 하였다.

95)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42). “傷寒, 脈浮者, 不可下.”

96)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13). “傷寒之氣, 有六禁. 初病之時, 甚似中酒·傷食者, 禁天下之.”

97)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79). “表症未罷, 大不可下. 如下則, 胃中虛空.”

98)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42). “諸洞泄寒中者, 不可下, 俗謂休息痢也.”

99)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42). “表裏俱虛者, 不宜下.”

100)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42). “『內經』中, 五痞心證, 不宜下.”

101)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42). “厥而脣靑, 手足冷, 內熱深者宜下, 寒者不宜下, 以脈別之.”

102)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42-143). “若十二經敗甚, 亦不宜下, 止宜調養, 溫以和之, 如下則必誤人病耳.”

103)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41). “若人年老衰弱, 有虛中積聚者, 止可五日一服, 萬病無憂散. 故凡積年之患, 豈可一藥而愈? 即可減而去之.”

104)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42). “小兒內瀉, 轉生慢驚, 及兩目直視, 魚口出氣者, 亦不宜下.”

105)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229). “脈雖滑大, 以其且妊, 不敢陡攻, 遂以食療之.”

106)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41). “至如沈積多年羸劣者, 不可便服陡攻之藥.”

107)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43). “若其餘, 大積大聚, 大病大祕, 大滯大堅, 下藥乃補藥也. 余嘗曰, 瀉法兼補法. 良以此夫!”

2. 瀉血療法

『內經』에서 刺血法에 관해서 말한 내용을 살펴보면, 『靈樞·九鍼十二原』에서 말하기를 “菀陳則除之.”¹⁰⁸⁾라고 하였고, 『素問·鍼解』에서는 “菀陳則除之者, 出惡血也.”¹⁰⁹⁾라고 하여 ‘菀陳’의 의미를 惡血(瘀血)을 제거하는 의미로 보았으며,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血實宜決之.”¹¹⁰⁾라고 하였고, 『素問·調經論』“血有餘, 則瀉氣盛經, 出其血.”¹¹¹⁾이라고 한 것들이 모두 刺血法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張子和가 刺血療法에 사용한 질병을 살펴보면, 目暴赤腫, 羞明隱晦, 頭風疼痛, 少年의 髮白早落 혹은 白屑, 腰脊牽強, 陰囊燥痺, 雷頭風, 面腫風, 喉痺 등 다양한 병증에 응용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¹¹²⁾, 그 중에서 특징적인 것을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目疾

張子和가 말하기를 “눈이 갑자기 붉어지면서 부어오르거나, 밝은 것을 싫어하고 은은하게 澀痛이 있으며, 눈물 나오는 것이 그치지 않고, 갑자기 차가워지면서 눈이 평퍼짐해지는 것은 모두 火熱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¹¹³⁾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內經』에서 말하기를 ‘熱勝則腫’이라고 하였다. 火를 치료하는 방법은 藥에 있어서는 鹹寒한 것을 사용하여 吐를 시키거나 下를 시키고, 鍼에 있어서는 神庭·上星·顙會·前頂·百會에 出血을 시킨다. 그렇게 하면 눈에 翳膜이 생긴 것은 곧바로 없어지게 할 수 있으며, 통증은 곧바로 그치게 할 수 있고, 눈이 어두운 것은 곧바로 밝게 만들 수 있으며, 눈이 부

은 것은 곧바로 사그라지게 할 수 있다.”¹¹⁴⁾고 하였다.

그리고 눈의 질병 중에는 補瀉에 신중해야함을 설명하고 있는데, “『內經』에서 말하기를 ‘血實者宜決之.’라고 하였고, 또 『內經』에서 말하기를 ‘虛者補之, 實者瀉之.’ 하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雀目과 같이 밤눈이 어둡거나 內障이 생기는 것은 暴怒하거나 大憂한 까닭이다. 모두 肝主目하는데 血이 부족하니 出血시키는 것은 금지하고, 단지 補肝養腎하는 것이 마땅하다. 暴赤腫痛에 이르면 모두 銑鍼으로써 하는 것이 마땅하니, 앞에서 말한 다섯 가지 혈자리에 자침하여 出血시키면 된다. 다음으로 鹽油를 만들어서 髮根에 바르는데, 심한 자는 비록 두 번에서 세 번까지 바르는 것도 가능하고, 그 病勢를 헤아려서 평형을 이룰 때까지를 기간으로 삼는다. 白髮이 조금씩 있는 것은 흑색으로 변할 수 있고, 빠졌던 머리카락도 생길 수 있으니, 이러한 신비한 경험이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으로 전하지 마라.”¹¹⁵⁾고 하였다.

(2) 瘡疾

張子和는 瘡疾을 치료할 때 張仲景의 『傷寒論』에 나오는 汗吐下 三法을 위주로 치료하였지만, 환자가 너무 虛弱하여 藪부로 寒涼한 약제를 투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瀉血療法으로 치료한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그가 말하기를 “『素問·刺瘡論』의 五十九刺에 보면 ‘一刺則衰, 再刺則去, 三刺則已.’¹¹⁶⁾라 한 것을 볼 수 있다. 예전에 陳下지방에 瘡病이 있어 2년

108) 王冰 編纂,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醫聖堂. 2002. p.10.

109)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281.

110)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48.

111)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337.

112) 徐江雁, 許振國. 張子和唐宋金元名醫全書大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221.

113)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21). “目暴赤腫起, 羞明隱澀, 淚出不止, 暴寒目瞶, 皆火熱之所爲也.”

114)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21-122). “『內經』曰, 熱勝則腫. 治火之法, 在藥則鹹寒, 吐之下之. 在鍼則神庭·上星·顙會·前頂·百會, 血之. 翳者, 可使立退; 痛者, 可使立已; 昧者, 可使立明; 腫者, 可使立消.”

115)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22). “『內經』曰, 血實者宜決之. 又『內經』曰, 虛者補之, 實者瀉之. 如雀目, 不能夜視及內障, 暴怒大憂之所致也. 皆肝主目, 血少, 禁出血, 止宜補肝養腎. 至於暴赤腫痛, 皆宜以銑鍼, 刺前五穴, 出血而已. 次調鹽油, 以塗髮根. 甚者, 雖至于再至于三可也, 量其病勢平爲期. 少白可黑, 落髮可生, 有此神驗, 不可輕傳.”

116)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210-211.

동안 낫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만 溫熱한 약제만을 복용하여 점점 쇠약해져서 나에게 약을 지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내가 그 사람이 쇠약한 것을 볼 때에도 역시 함부로 寒涼한 약제를 곧바로 투여하지를 못하다가, 이에 『內經·刺癰論』에서 상세하게 말한 ‘諸癰不已, 刺十指間出血.’¹¹⁷⁾이라고 한 것을 취하여, 癰疾이 발작할 때에 내가 十指間을 刺絡하여 출혈시켰더니, 피가 나오는 것이 그치면서 寒熱의 증상이 곧 멈추어서 모두 그 신기함에 놀랐다.”¹¹⁸⁾고 하였다.

(3) 喉痺

張子和는 喉痺를 치료하는데 있어서 刺血시키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임을 강조하였는데, 그가 말하기를 “무릇 喉痺를 치료하고자 하면, 鍼을 사용하여 出血시키는 것이 최고로 上策이다. 다만 사람들이 鍼을 두려워하여 간곡하게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 된다. 무릇 鍼을 사용하여 상처가 남는 자는 生薑 한 덩어리를 찢어서 熱白湯으로 때때로 마시면 곧 상처 난 자리가 쉽게 아문다. 『銅人』 중에는 또한 灸法도 있지만, 그러나 통증이 미약한 사람에게 쓸 수 있지, 병증이 급속도로 빠른 사람에게 늦게 사용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게 되지 않을까 두렵다. 그러므로 喉痺의 火를 치료하는 것은, 화제가 난 것을 구제해주는 것과 같이 하여 조금도 기다려서는 안 된다. 『內經』에는 ‘火鬱發之’라고 하였는데, ‘發’이라는 것은 發汗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咽喉 중에 있는 것을 어떻게 發汗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出血시키는 것이 이에 發汗시키는 하나의 단서이다.”¹¹⁹⁾고 하였다.

117)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210. 원문에는 “諸癰而脈不見, 刺十指間出血, 血去必已.”라고 되어 있다.

118)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14). “嘗觀『刺癰論』五十九刺, ‘一刺則衰, 再刺則去, 三刺則已.’ 曾陳下, 有病癰, 二年不愈者, 止服溫熱之劑, 漸至衰羸, 命予藥之. 余見其羸, 亦不敢便投寒涼之劑, 乃取『內經·刺癰論』詳之曰, ‘諸癰不已, 刺十指間出血.’ 正當發時, 余刺其十指出血, 血止而寒熱立止, 感駭其神.”

119)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56). “大抵治喉痺, 用鍼出血, 最爲

이상에서와 같이 張子和는 『內經』과 劉河間의 ‘火熱論’의 영향을 받아 刺血法을 과감히 실천하면서 理論과 臨床 모두에서 큰 발전을 이룩하였음을 볼 수 있다.

3. 情志療法

張子和는 모든 질병이 ‘氣’로 말미암아 생긴다고 보았으니, “天地간에 가득찬 萬物은 모두 氣로써 태어나는 것이니, 그 病에 이르는 것도 氣로써 되지 않는 것이 없다.”¹²⁰⁾고 하였다.

『素問·舉痛論』에 보면 “余知百病生於氣也, 怒則氣上, 喜則氣緩, 悲則氣消, 恐則氣下, 寒則氣收, 炆則氣泄, 驚則氣亂, 勞則氣耗, 思則氣結, 九氣不同, 何病之生?”¹²¹⁾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張子和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무릇 天地의 氣가 항상되면 편안하지만 변동이 생기면 病이 생기는 것인데, 더구나 사람은 天地의 氣를 품수 받아서 태어났으니, 五運이 번갈아가면서 밖으로부터 침입하며, 七情이 교대로 속에서 다투고 있어서, 이러한 까닭으로 聖人은 ‘氣’를 아끼기를 지극한 보물을 간직하듯이 하며, 庸人들은 사물에 얽매이기 때문에 도리어 大和의 氣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黃帝와 岐伯께서 ‘諸痛皆因於氣’하고 ‘百病皆生於氣’한다고 말씀하신 까닭이다.”¹²²⁾고 하였다.

그리하여 『內經』에서는 九氣의 치료법을 五行의 相勝하는 이치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감정에 해당하는 怒·喜·思·悲·恐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하여 張

上策. 但人畏鍼, 委曲傍求, 瞬息喪命. 凡用鍼而有鍼創者, 宜搗生薑一塊, 調以熱白湯, 時時呷之, 則創口易合. 『銅人』中, 亦有灸法, 然痛微者可用, 病速者, 恐遲則殺人. 故治喉痺之火, 與救火同, 不容少待. 『內經』, 火鬱發之. 發, 謂發汗. 然咽喉中, 豈能發汗? 故出血者, 乃發汗之一端也.”

120)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64). “萬物盈乎天地之間, 咸以氣而生, 及其病也, 莫不以氣而得.”

121)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221.

122)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64). “夫天地之氣, 常則安, 變則病, 而況人稟天地之氣, 五運迭侵於其外, 七情交戰於其中. 是以聖人蓄氣, 如持至寶, 庸人役物, 而反傷大和. 此軒岐所以論, 諸痛皆因於氣, 百病皆生於氣.”

子和가 사용한 방법을 먼저 살펴보면, “悲라는 감정은 怒하는 것을 다스릴 수 있으니, 슬프고 고통스러운 말로써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이다. 喜라는 감정은 悲하는 것을 다스릴 수 있으니, 장난치면서 친근하게 하는 말로써 즐겁게 만드는 것이다. 攄이라는 감정은 喜하는 것을 다스릴 수 있으니, 두렵거나 누군가 死亡했다는 말로써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怒라는 감정은 思하는 것을 다스릴 수 있으니, 모욕하고 속이는 말로써 자극받게 만드는 것이다. 思라는 감정은 攄하는 것을 다스릴 수 있으니, 다른 것을 생각하도록 하여 그것에 뜻을 두게 하는 말을 함으로써 생각을 빼앗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무릇 이러한 다섯 가지는 반드시 교묘하게 속이는 기술이 도달하지 못하는 바가 없는 연후에야 다른 사람의耳目을 움직이고 다른 사람의 視聽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니, 만약 胸中에 재주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또한 이러한 다섯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¹²³⁾고 하였다.

계속해서 寒·熱·勞·驚의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寒과 熱’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熱은 寒을 다스릴 수 있으니, 寒이 外에 있는 것은 焯鍼·煖熨·烙·灸·湯으로 發汗시키고, 寒이 內에 있는 것은 熱食이나 溫劑로써 균형을 이루도록 만드는 것이다. 寒은 熱을 다스릴 수 있으니, 熱이 外에 있는 것은 清房·涼榻·薄衣나 清劑로써 發汗시키고, 熱이 內에 있는 것은 寒飲이나 寒劑로써 균형을 이루도록 만드는 것이다.”¹²⁴⁾고 하였고, ‘勞’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오직 일을 힘으로써 勞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니, 『內經』에서 말하기를 ‘勞者溫之’¹²⁵⁾라고

하였는데, ‘溫’은 곧 溫存하게 보존하여 몸을 기르는 것으로, 지금의 의가들은 ‘溫’자를 溫하게 만드는 藥劑로 삼음으로써 차질이 생긴 것이 오래되었다. 岐伯께서도 말씀하시기를 ‘以平爲期’라고 하였으니, 또한 休息하게 하라는 뜻이다.”¹²⁶⁾고 하였으며, ‘驚’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오직 익숙하게 만드는 것만이 驚을 치료할 수 있으니, 『內經』에서 말하기를 ‘驚者平之’¹²⁷⁾라고 하였는데, ‘平’자는 平常을 말하는 것이다. 무릇 驚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는 것이니, 익숙하게 만들고 자주 보게 만들면 든든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¹²⁸⁾고 하였다.

張子和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九氣의 모든 병들은 ‘心火’가 위주가 된다고 보고 ‘平心火’시킬 것을 강조하였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러한 아홉 가지는 『內經』에서부터 이러한 이치가 있었는데, 庸工은 폐기하여 실행하지 않았다. 지금 시대의 劉河間은 五志를 치료함에 있어 『內經』에서 말하지 않은 뜻을 홀로 얻었으니, ‘五志가 발현되는 것은 모두 心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무릇 喜怒哀驚思의 증상을 보게 되면 모두 ‘平心火’를 위주로 해야 한다. 勞는 동작하여 손상을 입은 것으로 동작하는 것은 곧 陽에 속하고, 驚은 心을 놀라게 한 것으로 心은 곧 火에 속하니, 두 가지도 역시 ‘平心’을 위주로 해야 한다. 지금의 의사들은 이러한 이치에 도달하지 못하고서 마침내 내가 寒涼한 약제만 쓴다고 비방하면서 여럿이 모이면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士大夫들도 또한 그들을 따라 의혹을 제기하니, 公議가 언제쯤이면 정해지려는가!”¹²⁹⁾라

123)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67). “悲可以治怒, 以愴惻苦楚之言感之. 喜可以治悲, 以譁浪褻狎之言娛之. 恐可以治喜, 以迫懼死亡之言怖之. 怒可以治思, 以汚辱欺罔之言觸之. 思可以治恐, 以慮彼志此之言奪之. 凡此五者, 必詭詐譎怪, 無所不至, 然後可以動人耳目, 易人聽視. 若胸中無材器之人, 亦不能用此五法也.”

124)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67). “熱可以治寒, 寒在外者, 以焯鍼·煖熨·烙·灸·湯而汗之; 寒在內者, 以熱食·溫劑平之. 寒可以治熱, 熱在外者, 以清房·涼榻·薄衣以清劑汗之; 熱在內者, 以寒飲·寒劑平之.”

125)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541.

126)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67). “惟逸可以治勞, 『經』曰, 勞者溫之. 溫, 謂溫存而養之. 今之醫者, 以溫爲溫之藥, 差之久矣. 岐伯曰, 以平爲期, 亦謂休息之也.”

127)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541.

128)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67). “惟習可以治驚, 『經』曰, 驚者平之. 平, 謂平常也. 夫驚以其忽然而遇之也, 使習見習聞則不驚矣.”

129)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67). “此九者, 『內經』自有是理, 庸

고 하여 九氣를 다스리는 약제를 사용한다면 ‘平心火’시키는 ‘寒涼’한 약제를 위주로 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儒門事親』에 기재된 情志와 관련된 질병은 60여 종류인데, 그 중에는 暴怒로 인해서 생기는 嘔血, 殞泄, 煎厥, 薄厥 등의 병증이 있고, 狂喜로 인해서 생기는 笑不止, 毛髮焦, 狂 등의 병증이 있으며, 悲哀로 인해서 생기는 癩癩, 陰痿, 暴下綠水 등의 병증이 있고, 思慮로 인해서 생기는 失眠, 白淫, 不欲食 등의 병증을 포함하고 있다¹³⁰⁾. 그 중에서 그가 치료한 독특한 임상 예를 몇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因憂結塊

張子和는 ‘喜勝悲’하는 치료원칙을 이용하여 슬픔으로 心痛과 함께 積聚가 생긴 환자를 치료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息城에 사는 司候의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가 도적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하면서(悲)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 후에 갑자기 心痛을 느꼈는데 날마다 증가하여 그치지 않았고, 한 달쯤 되었을 때 덩어리가 생겼는데 모양이 잔을 뒤집어 놓은 것과 같았다. 통증이 심하여서 잘 참지를 못하였고, 藥을 써도 모두 효과가 없었다. 燔鍼이나 艾炷를 사용하려고 의논하는데 환자가 싫어하여 이에 戴人을 찾아와 도움을 구하였다. 戴인이 이르렀을 때 마침 무당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어서, 이에 무당에게 여러 가지 狂言으로써 病者를 즐겁게 해 주라고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하였더니 크게 웃음을 참지 못하면서, 얼굴을 벽을 향한 채 1-2일 동안 있었더니 心下에 멍쳐있던 덩어리가 모두 흩어졌다. 戴인이 말하기를 『內經』의 말에 ‘憂則氣結’한다고 하였는데, 기뻐하게 되면 모든 脈이

펼쳐지는 것이다. 또 말하기를 ‘喜勝悲’라, 『內經』에 이러한 방법으로 치료하라고 하였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찌 鍼灸를 사용한다 말인가? 그 통증만 증가시킬 뿐이리라!”¹³¹⁾

(2) 病怒不食

張子和는 怒가 지나쳐서 木炷土로 인하여 飲食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환자를 치료한 예가 있으니 다음과 같다.

“項關令의 부인이 怒하는 병으로 飲食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고, 항상 소리치거나 꾸짖는 것을 좋아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惡言을 그치지 않았다. 많은 의사들이 모두 처방을 하여 약을 먹였지만 거의 반 년 동안 여전하였다. 그 남편이 戴人으로 하여금 진료하게 하였는데, 戴인이 말하기를 ‘이것은 약물로 치료하기는 힘듭니다.’하고 이에 2명의 기녀로 하여금 화장을 하게 하여 희극 배우처럼 만들었더니 그 부인이 크게 웃었다. 다음 날 또한 그렇게 하여 씨름을 하게 하였더니 또 크게 웃었다. 그녀의 곁에서는 항상 양쪽으로 잘 먹는 부인을 두고서 음식이 맛있음을 과장하게 하였더니 그 부인도 역시 그 음식을 찾아서 한 번 맛보게 되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怒하는 것이 줄어들면서 식욕도 증가하여 藥을 먹지 않아도 나았으며, 나중에 자녀도 낳았다. 무릇 의사에게는 재주 있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니, 만약 재주가 없다면 어찌 변화가 무궁한 것에 충분히 호응할 수 있으리오!”¹³²⁾

131)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233). “息城, 司候, 聞父死于賊, 乃大悲哭之. 罷, 便覺心痛, 日增不已, 月餘成塊, 狀若覆杯, 大痛不任, 藥皆無功. 議用燔鍼柱艾, 病人惡之, 乃求于戴人. 戴人至, 適巫者在其傍, 乃學巫者, 雜以狂言, 以謔病者. 至是, 大笑不忍回, 面向壁一二日, 心下結塊皆散. 戴人曰, 內經言, ‘憂則氣結’, 喜則百脈舒和. 又云, ‘喜勝悲’, 內經自有此法治之, 不知何用鍼灸哉? 適足增其痛耳!”

132)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233). “項關令之妻, 病怒不欲食, 常好叫呼怒罵, 欲殺左右, 惡言不輟. 衆醫皆處藥, 幾半載尙爾. 其夫命戴人視之, 戴人曰, ‘此難以藥治,’ 乃使二媼, 各塗丹粉, 作伶人狀, 其婦大笑. 次日, 又令作角觥, 又大笑. 其旁, 常以兩箇能食之婦, 誇其食美, 其婦亦索其食, 而爲一嘗之. 不數日, 怒減食增, 不藥而瘥, 後得一子. 夫醫貴有才, 若無才, 何足應變無窮!”

工廢而不行. 今代, 劉河間, 治五志, 獨得言外之意, 謂五志所發, 皆從心造. 故凡見喜怒哀驚思之證, 皆以平心火爲主. 至於勞者, 傷于動, 動便屬陽; 驚者駭于心, 心便屬火. 二者亦以平心爲主. 今之醫者, 不達此理, 遂有寒涼之謬, 群聚而譏之. 士大夫又從而惑之, 公議, 何時而定耶!”

130) 徐江雁, 許振國. 張子和唐宋金元名醫全書大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203.

(3) 不寐

張子和는 思慮過多로 잠을 못 이루는 환자를 激怒하게 만듦으로써 木剋土를 시켜서 잠을 자게 한 치료 예가 있으니 다음과 같다.

“한 부잣집 부인이 思慮가 지나치게 심하여서 2年 동안 잠을 자지 못하였는데,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 없어서, 그 남편이 戴人을 찾아와서 치료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戴人이 말하기를 ‘양쪽 手脈이 모두 緩하니 이것은 脾가 邪氣를 받은 것으로 脾主思하는 까닭이다.’고 하면서 이에 그 남편과 함께 ‘怒’로써 자극을 주기 위하여, 그의 재물을 많이 취하여 여러 날 동안 飲酒하고선 한 가지 방법도 가르쳐주지 않고 도망가 버렸더니, 그 부인이 크게 怒하면서 땀을 흘리고는 그날 밤 곤하게 잠을 잤다. 이와 같이 잠자기를 8-9일 동안 깨지 않더니, 그 이후로 음식을 먹고 脈도 그 평화로움을 얻었다.”¹³³⁾

(4) 驚

張子和는 『內經』에 나오는 “驚者平之”의 원칙에 따라 놀란 것을 평상시에 익숙하게 겪도록 만듦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하여 치료한 경험 예가 있다.

“衛德新의 부인이 여행 중에 누각에서 잠을 자다가, 밤에 도둑이 사람을 겁박하고 집에 불을 지르는 모습을 보고는 놀라서 침상 아래로 떨어졌다. 그 이후로 매번 어떤 소리를 듣게 되면 곧 놀라자빠지면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집안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걷더라도 걸을 때마다 소리 나는 것을 어찌하지 못하였는데, 여러 해가 지나도록 낫지 않았다. 모든 의사들이 心病으로 치료하여 人參이나 珍珠 및 定志丸을 써보았지만 모두 효과가 없었다. 戴人이 이것을 보고는 단정하여 말하기를 ‘驚이라는 것은 陽이니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고, 恐이라는 것은 陰이니 내부로부터 나가는 것이다. 驚은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恐은 스스로 아는 것이다. 足少陽膽經은 肝木에 속하고, 膽은 용감한 것이니,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곧 膽이 손상을 받은 것이다.’ 하고는 이에 2명의 侍女에게 명령하여 부인의 양쪽 손을 잡도록 하고, 높은 의자에 앉게 하면서 面前에 하나의 조그마한 棗를 놓게 하고는, 戴人이 말하기를 ‘부인께서는 이것을 보십시오.’ 하고는 나무 막대기로 사납게 두드리니 그 부인이 크게 놀랐다. 戴人이 말하기를 ‘내가 나무막대기로 棗를 두드리는 것일 뿐인데, 어찌하여 놀라는 것이요?’하고는 잠깐 안정되기를 기다린 후에 다시 두드렸더니 놀라는 것이 조금 완화되었고, 또한 조금 있다가 연속적으로 3-5회 정도 두드렸다. 또한 방망이로써 문을 두드리게도 하고, 또한 몰래 사람을 보내어 부인의 등 뒤쪽에 있는 창문에 그림자를 비치게 하기도 하였더니 서서히 놀라는 것이 안정되었다. 이제야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어떠한 치료법이요?’하고 물어보았다. 戴人이 말하기를 ‘『內經』에서 말하기를 驚者平之하라고 하였는데, 平이라는 것은 常을 말하는 것으로, 평소에 항상 보게 만들면 반드시 놀라지 않는 것이니, 이 밤에 사람으로 하여금 그 창문을 두드리게 하고 저녁부터 새벽에 이르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무릇 驚이라는 것은 神이 위로 벗어나는 것이니, 아래쪽에 棗를 두고서 두드려서 아래쪽을 보게 함으로써 神을 거두어들이게끔 하는 것입니다. 1-2일 정도면 비록 천동소리를 듣더라도 역시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고 하였다. 衛德新은 평소에 戴人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만족하면서 승복하였으며, 만약 戴人이 의학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몽둥이를 들고 쫓아내었다.”¹³⁴⁾

133)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234). “一富家婦人, 傷思慮過甚, 二年不寐, 無藥可療. 其夫, 求戴人治之, 戴人曰, ‘兩手脈俱緩, 此脾受之也, 脾主思故也.’ 乃與其夫, 以怒而激之, 多取其財, 飲酒數日, 不處一法而去, 其人大怒, 汗出, 是夜因眠. 如此者, 八九日不寤, 自是而食進, 脈得其平.”

134)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234). “衛德新之妻, 旅中宿于樓上, 夜值盜劫人燒舍, 驚墮牀下. 自後, 每聞有響, 則驚倒不知人. 家人輩, 蹣跚而行, 莫敢冒觸有聲, 歲餘不痊. 諸醫, 作心病治之, 人參珍珠及定志丸, 皆無效. 戴人見而斷之曰, ‘驚者爲陽, 從外入也; 恐者爲陰, 從內出. 驚者, 爲自不知故也; 恐者, 自知也. 足少陽膽經, 屬肝木, 膽者, 敢也, 驚怕則膽傷矣.’ 乃命二侍女, 執其兩手, 按高椅之上, 當面前, 下置一小几. 戴人曰, ‘娘子當視此.’ 一木猛擊之, 其婦大驚. 戴人曰, ‘我以木擊几, 何以驚乎?’ 伺少定擊之, 驚少緩. 又斯須連擊三五次.

이상에서와 같이 張子和는 현대의 精神科 영역에 속하는 질병에 대하여 ‘情志를 이용한 『內經』의 치료법’을 구체적으로 임상에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結論

張子和는 자신의 의학적인 이론을 설명함에 있어 주로 『內經』과 『難經』 및 『傷寒論』에 나오는 經文을 인용하여 이치를 밝히고 있으며, 『內經』을 해석할 때에는 주로 王冰의 주석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의 治療法은 汗吐下 三法, 瀉血療法, 情志療法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니 다음과 같다.

첫째, 『內經』에서는 그 치료 방법으로 氣血이 잘 流通되는 것을 귀중하게 여겼는데, 세속의 어리석은 의사들이 오직 補하여 閉塞시키는 것을 귀중하게 여긴다고 보았다. 따라서 汗吐下 三法을 써서 먼저 그 邪氣를 제거해서 氣血을 流通시키면, 正氣를 돕는 약을 따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正氣가 저절로 보충될 것이며 그것이 진정한 補라고 설명하고 있다.

둘째, 질병을 치료할 때 주로 汗吐下 三法을 통하여 邪氣를 체외로 몰아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發汗法에 대해서는 “開玄府而逐邪氣”한다고 하였고, 涌吐法에 대해서는 “吐之令其條達”한다고 하였으며, 攻下法에 대해서는 “下之推陳致新”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 방법론에서 매우 정확하고 과감하며 일반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유연성과 다양성이 있었다.

셋째, 『內經』에 나오는 “菀陳則除之”하라는 것과 “血實宜決之”하라는 것에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劉河間의 ‘火熱論’의 영향을 받아 刺血法을 과감히 실천하면서 理論과 臨床에서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넷째, 현대의 精神科 영역에 속하는 질병에 대하여, 『內經』에서 말한 五行의 相勝하는 이치를 이용

한 九氣의 치료법을 구체적으로 임상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 西洋醫學의 神經精神科 분야의 주요한 치료법 중의 하나인 인지행동치료의 방법론을 이미 적용하고 있는 것이며, 약물을 이용하지 않고 정지변화를 유도하는 고차원적인 精神治療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九氣의 모든 병들은 ‘心火’가 위주가 된다고 보고 ‘平心火’시킬 것을 강조하였고, 약제를 사용할 때에는 ‘平心火’시키는 ‘寒涼’한 약제를 위주로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섯째, 그의 의학 이론은 비록 寒涼한 약제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치료 방법이 너무 과격하다는 후세 의가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의 이론 중에 약물을 사용할 때 시대적인 상황이나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나, 七情病과 같이 사람의 심리적인 변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을 약물 치료와 함께 감정 치료를 병행하여 치료해야 한다는 것 등은 독창적인 치료방식이라고 생각된다.

여섯째, 張子和의 汗吐下 三法과 관련된 理論과 治療方法을 현대인들의 과도한 열량섭취와 에너지 과잉으로 인해서 생기는 각종 질환에 응용한다면, 몸속에 있는 노폐물과 邪氣를 체외로 배출시킴으로써 즉각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參考文獻

〈논문〉

1. 金軍, 尹暢烈. 張子和의 生涯 및 刺血理論에 관한 研究. 대한원전학회지. 2005.5. pp.205-212.
2. 金基郁, 朴炫局, 鄭庚昊. 儒門事親의 汗法에 관한 研究. 대한원전학회지. 2008.2. pp.1-11.
3. 金基郁, 朴炫局, 徐志泳. 儒門事親의 完本과 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원전학회지. 2008.2. pp.205-222.
4. 金基郁, 朴炫局, 金溶珠. 儒門事親의 吐法에 관한 연구. 대한원전학회지. 2008.5. pp.193-200.
5. 金基郁, 朴炫局, 金溶珠. 儒門事親의 下法에 관한 연구. 대한원전학회지. 2008.8. pp.27-36.

又以杖擊門。又暗遣人，畫背後之窗，徐徐驚定而笑曰，‘是何治法？’戴人曰，‘內經云，驚者平之。平者常也，平常見之必無驚。是夜，使人擊其門窗，自夕達曙。夫驚者，神上越也，從下擊几，使之下視，所以收神也。一二日，雖聞雷，亦不驚。’德新，素不喜戴人，至是，終身厭服，如有人言戴人不知醫者，執戈以逐之。”

〈단행본〉

1. 徐江雁, 許振國. 張子和唐宋金元名醫全書大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92, 195, 203, 221.
2. 薛益明. 張從正臨證心法.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p.5-7.
3. 成無己.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287, 307, 388.
4. 蕭國鋼. 儒門事親研究.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8. p.42, 64. pp.91-95.
5. 嚴世芸 主編. 金重漢 外4人 共譯. 國譯中醫學術史. 서울. 대성의학사. 2011. p.465.
6.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32, 35, 47, 48, 197, 221, 281, 337, 502, 541. pp.210-211, 501-502.
7. 王冰 編纂,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醫聖堂. 2002. p.10.
8. 李聰甫, 劉炳凡. 金元四大家學術思想研究. 서울. 成輔社. 1985. pp.74-75.
9. 張從正 著. 구병수, 이동원 共譯. 儒門事親.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4.
10. 張從正. 儒門事親. 台北. 旋風出版社. 1978.
11. 張從正. 中國醫學大系. 四庫全書(儒門事親). 서울. 麗江出版社. 1986. p.745(104), 745(111), 745(113), 745(114), 745(121), 745(122), 745(125), 745(129), 745(132), 745(133), 745(134), 745(135), 745(136), 745(137), 745(138), 745(139), 745(140), 745(141), 745(142), 745(143), 745(156), 745(164), 745(167), 745(179), 745(181), 745(229), 745(233), 745(234), 745(267). pp.745(210-211), 745(336-337).
12. 洪元植 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p.219.

